

- 주요 뉴스: 미국 4월 구인건수, 전월비 증가. 인력난 지속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예상
 - 미국 재무부 경제정책자관보, 금년 경제는 확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
 - 러시아, 외화부채 상환으로 채무불이행 회피할 전망
 - ECB 이사,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6월 자산매입 종료 및 7월 금리인상 가능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통화긴축 전망이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평가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5%], 달러화 약세[-0.3%], 금리 하락[-1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전일과 같이 저가 매수 유입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주 강세 등으로 0.5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이 반영
유로화 가치는 0.1% 상승, 엔화는 보합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가격 하락이 과도하다는 인식 등으로 매수 증가
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흐름 보이며 보합 마감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61.1원, -6.8원) 0.5% 하락, 한국 CDS 상승

5/3일					5/2일				
전일대비					전일대비				
주가	미국	4,175.5	4,155.4	0.48%	국채 금리 10y	미국	2.97%	2.98%	-1bp
	유럽	446.20	443.83	0.53%		독일	0.97%	0.97%	-0bp
	중국	휴장	휴장	-	CDS 5y	한국	42bp	40bp	2bp
	일본	휴장	26,819	-		중국	80bp	80bp	0bp
	한국	2,680.5	2,687.5	-0.26%	위험 지표	EMBI+	-	395	-
환율	달러지수	103.48	103.74	-0.26%		VIX	29.25	32.34	-9.55%
	유로화	1.0521	1.0507	0.13%		WTI유	102.41	105.17	-2.62%
	엔화	130.14	130.16	0.02%	원자재	구리	427.1	425.6	0.36%
	위안화	휴장	휴장	-		금	1,868.1	1,863.0	0.27%
	원화	1,267.8	1,265.1	-0.2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4월 구인건수, 전월비 증가. 인력난 지속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예상

- 노동부에 따르면, 4월 구인건수는 1155만건으로 전월(1134만건) 대비 21만건 증가. 이는 시장 예상치(1120만건)를 상회. 한편 퇴사자의 수도 전월비 15만명 늘어난 454만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
- 오미크론 감염 우려가 완화되면서 대면 접촉이 많은 요식업, 숙박, 건강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구인건수가 증가. Navy Federal Credit Union의 Robert Frick은 금년 말까지 이와 같은 노동수급 불균형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
- 한편 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 지속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,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
- Moody's Analytics의 Sophia Koropecyk는 역사적으로 연준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으나, 최근에는 노동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총지출 둔화 유도를 정책의 단기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평가
- 이번 결과를 고려할 때, 연준은 상당 기간 고강도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. 블룸버그의 Eliza Winger는 연준이 연말 정책금리를 2.5~2.75%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5, 6, 7월 3회 연속으로 0.5%p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부 경제정책차관보, 금년 경제는 확장세를 지속할 전망

- 벤자민 해리스 차관보는 1/4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금년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. 한편, 향후 경기부양책 축소 및 통화긴축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

■ 하버드 대학의 케넷 로고프, 연준은 정책금리를 최대 5%까지 인상 가능

- 로고프 교수는 미국 인플레이션 수준이 40년래 최고치이며, 세계경제는 모든 주요국이 경기침체 위험이 있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있다고 평가
- 경제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, 통제 불능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

■ JP 모건, 미국 증시의 매도 심리가 과도, 가까운 시일 내에 주가 반등을 예상

- Marko Kolanovic 애널리스트는 개인투자자의 약세장 심리가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. 지금은 투자자의 주식 비중이 낮기 때문에,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고 권고

■ 러시아, 외화부채 상환으로 채무불이행 회피할 전망

-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은 지난 주 러시아 측이 지급한 6.5억달러 규모 외화부채(5/4일 만기)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했다고 발표. 다만 이번 자금을 수취해야 할 채권자에게 아직 완전히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

■ ECB 이사,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6월 자산매입 종료 및 7월 금리인상 가능

- 슈나벨 이사는 더 이상 구두 대응은 충분하지 않으며, 이제는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. 한편 유로존이 경기침체에 진입할 확률은 낮으며, ECB의 핵심 책무는 경제성장 촉진이 아니라 물가안정이라고 강조

■ 유로존 3월 생산자물가, 전월비 큰 폭 상승(5.3%).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원인

- 이번 결과는 전월(1.1%) 및 예상치(5.0%)를 모두 상회.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36.3% 상승. 에너지를 제외할 경우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각각 2.1%, 13.6%. 공급망 차질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

■ 호주 중앙은행,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(0.25%p) 단행. 추가 인상 가능성 제시

- 이번 인상폭은 당초 시장 예상(0.15%p) 보다 높은 수준. 한편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. 필립 로우 총재는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, 장기적으로 정책금리는 2.5%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5/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공장수주(전월비): 2.2%, 2월(0.1%), 예상치(1.1%)
- 유로존 3월 실업률: 6.8%, 2월(6.9%), 예상치(6.7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5/4 현지시각 기준)

- 5월 FOMC, 미국 4월 ADP 민간고용, 4월 ISM 서비스경기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연준의 통화정책, 판단 오류로 경기 연착륙 기회 상실할 가능성 - Financial Times**
(How the Fed lost the plot)
 - 연준은 물가가 목표를 큰 폭으로 넘어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금리인상을 시작.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며, 경기 확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골디락스(Goldilocks) 시나리오에 의존한 잘못된 판단에 기인
 - 그러나 물가상승은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확대를 상쇄하고 있으며, 향후 정책금리가 높게 설정되면 경기를 냉각시킬 우려.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, 연준의 신뢰가 훼손. 이는 향후 정책시행 관련 위험으로 작용
- **미국 주식·채권 가격의 동반 하락, 추가적인 채권 매도에는 신중할 필요 - WSJ**
(Stocks and Bonds Are Falling in Lockstep at Pace Unseen in Decades)
 -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상 전망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모두 부진. 이로 인해 주식 투자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어려움에 직면.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채권 매도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
 - 이는 정책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, 금리인상이 노동시장과 소비에 미칠 영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. 실제로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고가 제품의 구매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전개
- **미국 Amazon의 투자 축소 계획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유도할 소지 - 블룸버그**
(The Amazon Economic Indicator Says Inflation Is Easing)
- **중국 내 코로나 19 감염 확대, 금속가격의 상승세 약화 여건을 조성 - WSJ**
(China's Covid-19 Outbreak Cools Metals Rally)
- **미국 달러화 강세, 여타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킬 전망 - 블룸버그**
(The Hideous Strength of the U.S. Dollar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